



HKLTS NEWSLETTER

SEP 2025

VOL. 2



HONG KONG
**LIFEROAD
THEOLOGICAL
SEMINARY**

기적의 역사를 감사하며...

우리 홍콩생명길신학교(HKLTSS)는 선교지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세워졌으며, 그 지향점을 학칙에 천명하여 놓았습니다. 이에 개교 7년 동안 이 목표를 향해 학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결과를 보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학교는 홍콩, 중앙아시아, 중국, 필리핀, 말라위 등에 지역 캠퍼스를 운영하며 현재 250명의 신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입학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형중 박사 (본교 이사장)

더욱이 소중한 일은 국제적으로 아시아지역 신학교의 가장 권위있는 학위인준기관인 ATA (Asia Theological Association)에 준회원으로 회원가입이 허락되어 우리 학교가 발행하는 졸업장과 학위가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 되어 학교 발전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지 신학교 학위인준 기관인 ATEA (Association of Educators and Trainers in All-tribes)의 창립멤버로 동참하며 많은 관계성 가운데 우리 학교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한 일은 전세계 정규대학들의 국제성적인증 기관인 WES (World Education Services) 로 부터 학사 결과에 대한 공식인준을 받게되어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미국과 전 세계의 어느 대학교에서든지 상위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마디로 주님이 함께하신 기적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지역에서 섬겨 주신 동역자들의 노고와 각 캠퍼스에서 강의해 주신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태인 홍콩한국선교교회의 헌신은 오늘의 우리가 있게된 거름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동행하고 있는 NGO 단체인 느헤미야 인터네셔널 (Nehemiah International),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손을 내밀어 주신 VCU (Virginia Christian University)와 SWBTS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무디 신학교 (Moody Bible Institute), TMS (The Master's Seminary) 등과 MOU 관계를 체결하여 협력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 역명의 성도님들의 격려와 도와주심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학교가 이루어 온 모든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급변하는 세상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자

우리는, 한편으로는 지금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 소식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여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려는 열정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이런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수없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종교적 갈등, 인종적 갈등, 민족적, 이념적 갈등 등이 우리의 걸음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 덕분에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감동적인 일들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들 역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국제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전례(前例)없는 혼란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처처에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질병이 난무하고 기후 변동으로 인해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인간의 삶을 파괴해 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공관복음서에서 경고하신 대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듯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권호덕 총장 (Dr. theol.)

이럴 때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바울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통도 불편하던 그 시대에 육로(陸路)로 혹은 배를 타고 유럽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천막을 지어 생계를 유지하고 악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방해하면, 그는 더러는 성경 진리로 담대히 대항하고, 더러는 지혜롭게 악인들을 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실 복음으로 로마제국을 정복한 것입니다. 바울은 배가 파선하여 바다에서 떠다녔을 때, 혹은 한번에 39대 맞는 곤장(棍杖)을 여러 번 맞았어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이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는 포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 자유인(自由人)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 자유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면 그 후로는 알아서 맡겨진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찾아서 불평 없이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 누구보다도 참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적진(敵陣) 속에 깊숙이 떨어져 알아서 국가를 위해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군인과 같이 말입니다.

생명길 선교회에 속한 모든 사역자들은 오늘도 참 자유인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홍콩생명길신학교

권오영 부총장/박사과정위원장 (Ph.D)

지난 9월, 생명길 신학교에 합류한 이래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생명길 신학교가 21세기 선교지에 특화된 제2의 마틴 루터를 양성하는 신학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 신학적 교육의 근본을 철저히 지키며, 동시에 시대적, 환경적, 상황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역동적이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 우리 신학교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는 신학자, 설교자, 목회자, 그리고 개척자로서 교회의 전통을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변혁한 용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성경 해석의 불합리함과 교회의 사유화 및 독재화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의로운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구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중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했던 진정한 목회자였습니다.

생명길 신학교는 이와 같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하여 성경을 통해 시대의 부조리를 철저히 비평하고, 선교 현지에 가장 적합한 신학 교육을 제공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길 신학교의 비전이며,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생명길 신학교가 이룬 발전을 몇 가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 지경의 확장입니다.

우리 신학교는 홍콩과 중화권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교육 사역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를 품는 선교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라 믿습니다.

둘째, 신학 교육의 질적 향상입니다.

생명길 신학교는 학사, 전문 석사, 박사 과정에 이르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학문적 프로그램을 통해, 오랜 전통을 가진 신학교들조차 이루기 어려운 질적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 현지의 교수 요원을 양성하여 선교지에 최적화된 토착 리더십과 신학 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 시스템의 전문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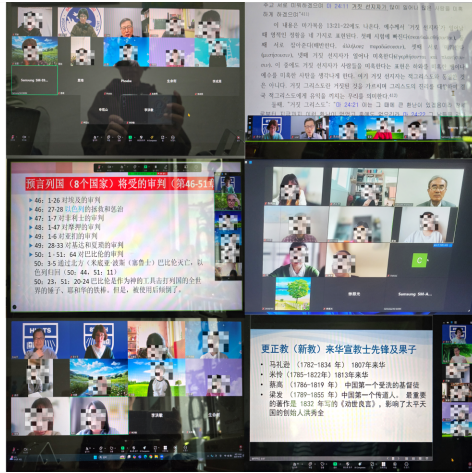
신학교는 각 행정 분야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신학교의 내실을 강화하며, 교육과 선교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길 신학교를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척박한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교육하며,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6월23일 末世论 考试题目

1. 列举主张“死亡不是罪的结果”的人的观点，并评估其问题所在。
2. 列举并评估卡尔·巴特 (Karl Barth) 与布伦纳 (Emil Brunner) 关于“灵魂不朽”的主张。
3. 列举并评估安东尼·霍克马 (Anthony Hoekema) 关于“灵魂不朽”的主张。
4. 比较不信者死后状态与圣徒死后状态
5. 概述加尔文的主张，说明圣徒在死后其灵魂的状态。
6. 生者与死者之间是否可能接触？请以扫罗为例进行说明。
7. 请以“七十个七”为中心，画出图表，列举旧的圣经所讲的末世时间表。
8. 请画出图表，说明福音书和保罗书信中所讲的末世时间表。
9. 列举出现在十字架上的耶稣的特征。
10. 列举时代主义的千年王国说，并批判其存在的问题。
11. 论述透义学意义上的地狱体验。
12. 证明启示录第7章中出现的“神的印记”就是十字架。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C국은 이단 뿐 만 아니라 검증할 수 없고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을 가진 가정교회들이 많아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각 지역마다 긴장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zoom을 통한 강의나 모임이 여러 곳에서 발각되고 잡혀가면서 S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긴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1학기를 마칠 때 즈음에는 zoom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의하거나 수업에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2학기에는 다시 복학한 학생도 있고 새롭게 등록한 학생도 있어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가 한껏 고무되고 있습니다.

1학기에 이어 이종우 교수님의 신약 선교사상과 주성일 교수님의 이슬람과 이슬람 선교 두 과목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하려고 했던 예배학은 2026년 1학기로 배정했습니다. 4명의 학생이 졸업고사를 준비하고자 해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 가운데 사역자들이 많아 zoom을 통해 강의를 듣고 동시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심양 캠퍼스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른 신학을 세우고 건강한 목회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개별적인 관리와 격려 뿐 아니라 충실한 강의를 준비하고 선별된 기독교 서적들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양아 캠퍼스



생명길 신학교 중양아시아 캠퍼스는, 지난 9월 2일-4일 '2025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으라(왕상19:5-8)'는 주제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역 나눔의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인내와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T 형제는 카프카스의 '체첸' 민족이지만, 조지아(그루지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지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9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올해 우리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MBB (Muslim Background Believer) 들이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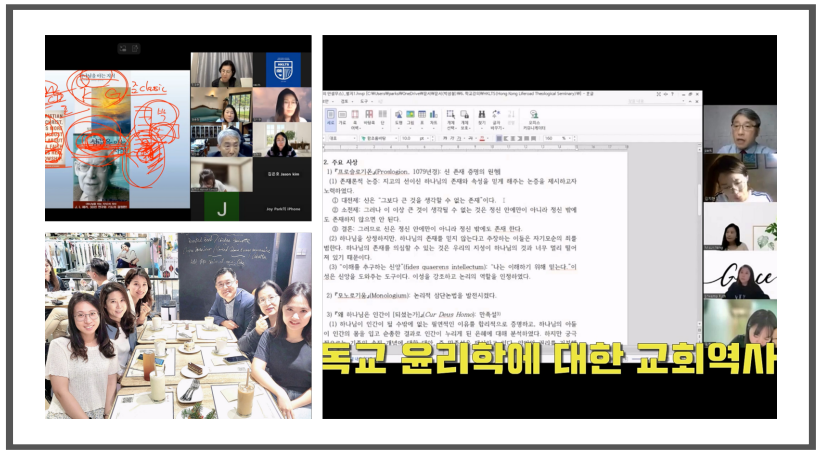
그리고 밤중에 누군가가 집에 불을 질러, 그의 아들이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사역 대상이 무슬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경회에는 T 형제가 조지아 대표로, 목발을 짚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큰 격려와 힘을 얻고 사역지로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중양아시아 캠퍼스는 건강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사역 전략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의 카이로스를 맞이한 실크로드 지역, 이슬람권 지역에서, 생명길 신학교 중양아시아 캠퍼스 학생들은 지금도 학업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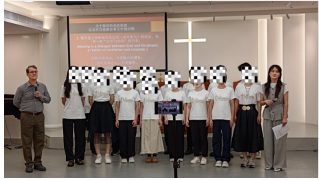
생명길신학교 홍콩캠퍼스 기독교교육학과는 한인 교회들의 주일학교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학 석사 과정’과 ‘목회학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학사 일정에서는 필수 과목 6과목과 선택 과목 6과목이 개설되어 총 12과목의 커리큘럼이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홍콩 내 여러 교회에 소속된 재학생들은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수업을 병행하며 실천적 신학의 내면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6분의 박사급 교수진이 Zoom을 통해 강의를 섬겨 주셨습니다.

본 학과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복음의 선포와 나눔을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으며, 신학생들이 지역 교회 및 MISSION THURSDAY 난민 사역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Shatin ICC교회의 목요 사역 참여는 사역 학점으로 3학점이 인정되며, 이는 학생들의 신학교육과 사역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 신학 훈련을 실현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9월 학기에는 필수 과목으로 “21세기 선교와 기독교교육 핵심 사역 도구와 전략”, “구약 내러티브 설교하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택 수업으로는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골로새서 강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홍콩 생명길신학교 기독교교육학과에서는 2025년에 M.A. 과정 1명, M.Div. 과정 1명, 총 두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중 특히 본교의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한 졸업생에게는 무디신학교 박사 과정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이는 본 학과의 교육 수준과 국제적 연계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올해 졸업한 두 명의 신학생들은 사역자로 헌신하여 선교지와 교회 사역을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C국 G 캠퍼스

지난 학기 우리 음악원에서는 성악 전공 학사 1명과 피아노 반주 전공 석사 1명이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은 9월 7일 홍콩에서 열렸으며, 개교 7주년을 기념한 학위수여식과 졸업연주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교수진 보강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학기 피아노 반주 전공에 영국 국립음악원에서 오페라 코치와 피아노 반주 석사를 받은 이세호 선생을, 이번 가을학기부터 플루티스트 김은선 선생과 미국 SWBTS에서 예배학 박사를 받은 정미미 선생을 교회음악원 청빙교수로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난통 예비학교 졸업생 3명이 이번 학기 본원 신입생으로 진학했습니다. 예비과정에서 본과정으로 이어지는 이 전환은 교육 체계의 연속성과 사역 준비의 현장성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70여 명이 참여하는 찬양 말씀 교육 사역인 라이프로드키드싱어즈가 이번 학기에 “질서”라는 주제로 제12기를 시작했습니다. 합창 훈련과 더불어 말씀을 함께 가르치는 이 사역을 통해, 참여자들이 예배적 삶의 습관과 성경적 규범을 균형 있게 세워가도록 도우며 잃어버린 중국교회 주일학교 역할을 채우고 있습니다.



C국 C 캠퍼스

C국 대륙의 예배 회복과 다음 세대 사역자 양성을 위하여 생명길 신학교 C 캠퍼스는 지역의 잠재적 인재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 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보컬, 악기, 부모교육 등 다양한 단기 세미나를 통해 신학교를 소개하고, 인맥을 확장하는 사역을 가졌고, 다음으로 매주 모이는 라이프로드 싱어즈 청두 합창단 사역과 매년 12 월에 열리는 정기음악회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훈련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5 년 12 월 7 일에 제 2 회 정기음악회를 준비중입니다. 또한 깊은 헌신과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를 길러내기 위해 예배인도자 양성과정(1 년)과 주일학교 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또한, 현지에 생명길 신학교의 정체성을 품은 차세대 리더이자 교수를 양성하기 위한 예배학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 년 봄에 예배인도자 양성과정 4 기생과 주일학교 교사 양성과정 2 기생이 은혜 가운데 졸업하여 현지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또한 예배학 석사과정 역시 감사함으로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예배학 김선주 교수님을 모시고, 온라인(Zoom)을 통해 '예배 기획과 성경적 예배 선곡'이라는 과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 예배를 디자인하고 메시지에 맞는 찬양을 선별하는 전문성을 갖추어, 각자의 사역지에서 더욱 깊이 있는 예배를 세워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C국 W 캠퍼스

1. 2025년 2명 학사 선생님 졸업

아동 상담과 청소년 상담 두 과목을 매주일 월요일마다 대면으로 총 6시간씩 가르쳤고 중간고사 와 기말시험을 통해 모두 좋은 성적으로 학기를 마쳤고 7월 28일 성경 친구 약 총 140구절을 가지고 50문제 시험을 보는 졸업 시험을 진행했고 마지막 12권 신학 및 신앙 서적 독후감을 7월 말까지 제출하는 졸업 과정을 다 마치고 총 4년 1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봄학기 수료반 과정

두 명의 상급반 선생님께서 수업을 6월 말까지 2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한분은 서안에 계신 분이시고 2년 과정을 마쳤고 다른 한분은 근처 다른 성에 계신 두 분으로 1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4시간씩 상급반 수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 9월에 본 학교의 기독교 교육과 학사과정을 정식 졸업한 현지인 두 분 선생님께서 같이 현지 강사로 참석하여 공동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HKTLS Philippine Campus 2025



필리핀 및 아시아 캠퍼스

필리핀 캠퍼스는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9 월 신입생 선발에서는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사역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학업 의지를 갖춘 예비 사역자들을 선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지 상황에 맞춘 소통 시스템을 통해 개별 면담과 상담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독려로 학업 참여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6 월에는 현지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student Coordinator 를 임명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캠퍼스는 전체적으로는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높은 학업 열정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시아 리전과 필리핀 캠퍼스의 줌 수업이 곧 열릴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목회자 학생들이 컴퓨터 없이 핸드폰만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 차원에서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중고 컴퓨터 도네이션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 학생 관리와 격려를 통해 미래의 사역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라위 캠퍼스



첫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말라위 캠퍼스 네 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 안에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준비되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졸업을 앞두고 이 중요한 이정표를 맞게된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아직 졸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학생들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학업에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수업 하이라이트

올해 말라위 캠퍼스는 벌써 세 번의 Zoom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수업 세션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가득했으며, 신학이 부재해 있는 이 땅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귀한 간증들이 나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이 가능토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1월에는 Zoom 수업이, 12월에는 현장 수업과 1회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남은 한 해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입생 환영

이번 새 학기에는 24명의 신입생으로 구성된 7기 학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입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배움의 여정이 단순한 지식의 추구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땅 가운데 영적인 부담을 갖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 여러분의 삶과 섬기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 (LRS)

라이프로드싱어즈는 2025년 2월에 말레이시아.홍콩.마카오에서 해외 순회 찬양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Calvary Church를 시작으로 홍콩의 느헤미야 인터내셔널과 함께 미션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음원.미디어 사역(작곡.편곡, 녹음, 영상 촬영, SNS 업로드)과 교회 찬양 집회를 이어가며 많은 영혼들과 찬양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9/18(목)에는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라로싱 미션콘서트 '찬양의 제사'를 개최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또 라로싱 안에서 3명의 단원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귀한 선교적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홍콩캠퍼스를 졸업한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시대 속에서 시작한 신학교 공부를 이제 마치게 되니 감회가 참으로 새롭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던 날들, 온라인으로 예배와 수업을 드리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인지 수없이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진리가 충돌하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과 인내를 요구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 고민은 계속되고 있으며, 아마도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깨달음과 방향을 주셨고,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는 반석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품고,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목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인내와 사랑으로 지도해주신 윤형중 이사장님과 윤모세 부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지도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의 말씀 한 마디, 기도 한 줄이 제 신앙과 사역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각 캠퍼스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하며 기도했던 학우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서 있었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졸업이라는 새로운 출발점 앞에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더욱 담대히 그분의 뜻을 따라 जाएगा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 W캠퍼스 졸업생 소감문

4년간의 학습이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다.

이런 배움을 준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학교가 정성껏 설계한 수업 내용과 이렇게 편리한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매번 학습할 때마다 제 때에 영적인 식량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 선생님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과 동행에 감사드리며, 루 선생님은 자신의 가정을 제공해 주시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자신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배움은 일단락되었지만, 사실 새로운 출발점이자 여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정 생활에서, 저는 수업을 통해서, 나의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후에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도움에 의지해야만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속화, 신앙의 약화, 세대 간 소통, 의사소통 장애, 과학기술과 정보 폭발의 충격, 가족 구조의 변화, 신앙과 실천의 단절, 사회적 압력과 정체성 불안, 신세대 학습 압력 등의 상황 가운데 신앙을 계승 하는데 가족의 자연적 장점인 '신앙을 집중해서 배양하는 방법'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통해 신학 지식의 인지도가 더욱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구속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 지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불쌍히 여김을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학습하고, 진리를 잘 이해하고, 신앙과 잘 연결되어 모순과 단편화를 피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내고 교회의 건강과 하나됨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학습을 통해 편견이 무지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공부를 하고 나서야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하늘의 가장 높은 기쁨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를 경험하였습니다.

신학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자주 밝혀지고 따뜻해지며, 주님의 가장 높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귀한 나침판을 놓게 해준 학교와 가르침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홍콩생명길신학교(Hong Kong LifeRoad Theological Seminary)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HKLTS 신학교는 제 삶과 말라위 및 아프리카의 교회 사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신학교를 통해 저는 성경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게 되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얻게 되어서, 이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와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복음을 회복했는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견고히 서게 되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더 건강한 교리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콩생명길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상담과 리더십과 같은 사역 기술도 습득하게 되어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길 잃은 양떼들을 다시금 인도할 수 있을 것이며, 리더십 수업들은 교회를 잘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제 사역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며, 신학함을 통해서 저의 영적인 성장도 향상되었고, 또한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HKLTS 신학교 안의 모든 교수진들과 행정처에 감사드리며, 이 신학교가 먼 이곳 아프리카까지 올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말라위에서 루이스 로렌스 음사쿠 목사 드림